

16일 Market Index			
코스피	3999.13	코스닥	916.11
	(-91.46)		(-22.72)
금리	2.999	환율	1475.40
	(-0.001)		(+4.40)

머스크·리사 수 만나고 온 이재용 글로벌 AI대전환 사업구상 구체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美서 북귀 테슬라 머스크와 테일러공장 방문 리사 수 만남서 ‘HBM공급’ 핵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일주 일간의 미국 출장에서 북귀한 가운데 삼성이 내년도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글로벌 전략회의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이 회장이 미국서 테슬라와 AMD, 인텔, 퀄컴, 버라이즌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만남을 갖고 돌아온 만큼 이번 전략회의는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반도체, 전자 등 그룹의 핵심 사업의 경쟁력 확대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번 미국 출장 기간 중 오스틴에서 일론 머스크 CEO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은 테슬라 본사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이 위치한 곳이다. 두 사람은 인근 테일러 파운드리 신규 공장을 둘러보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



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테슬라로부터 23조원(165억달러) 규모의 차세대 AI 칩 ‘AI6’ 생산 계약을 따냈다. 이는 파운드리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리사 수 AMD CEO와의 만남에서는 HBM(고대역폭메모리) 공급과 2나노 파운드리 수주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삼성전자는 AMD의 AI 가속기 ‘MI350’에 HBM3E 12단을 공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새너제이 소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미주총괄(DSA) 사옥을 방문해 현장 경영도 챙겼다. 그는 이번 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AI 대전환이 본격화할 내년도 사업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회장은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글로벌 전략회의는 참석하지 않

고 출장 성과를 정리한 뒤 내년 사업 방향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글로벌 전략회의의 최대 화두는 AI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각 사업부의 현안 및 내년도 사업 목표, 영업 전략 등이 논의되는 자리로 향후 경영 방향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16~17일은 모바일·가전·TV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이, 18일에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장은 내년 초 서울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신년 사장단 만찬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신년 사업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이 AI 시대를 맞아 기술 경쟁력 강화와 위기 대응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이재용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5년 기부·나눔 단체 초청행사에서 바보의 나눔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보의 나눔 홍보대사 바다, 이 대통령, 김 여사, 구요비 옴 주교(이사장).

이재용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5년 기부·나눔 단체 초청행사에서 바보의 나눔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보의 나눔 홍보대사 바다, 이 대통령, 김 여사, 구요비 옴 주교(이사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올해 의료관광 외국인 140만명 뷰티·유통·관광 등 성장축 부상

외국인환자 소비패턴 분석 보고서

‘K의료’가 뷰티, 유통 서비스, 관광 등 연관 산업을 견인하며 고부가가치 성장축으로 부상했다.

1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K의료가 활성화되면서 방한 외국인 환자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방한 외국인 환자수는 전년 61만 명에서 117만 명으로 약 2배 늘었다. 방한 외국인 환자 실적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연간 100만 명대에 진입한 가운데, 올해는 1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용카드 소비 외국인 환자 92만명 소비금액 3.7조 중 1.4조는 의료소비 1인당 의료비 포함 총 소비 399만원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4 신용카드 데이터로 본 외국인환자 소비패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단일 진료에서 다양한 의료 관광으로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의료 소비를 한 외국인 환자수는 약 92만 명이다. 이들의 카드 소비 전체 금액은 3조6647억원이며 이중 의료 소비는 1조4053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38%에 해당한다.

진료과별 소비 구조는 피부과가 5855억원의 소비가 발생해 1위에 올랐고 성형외과 3594억원이 뒤를 이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만 총 9449억원의 소비가 나타난 것으로 이는 의료 소비의 67%를 차지한다.

이러한 피부과, 성형외과 등 주요 진료과 이용과 함께 백화점·면세점·특급 호텔·일반음식점 등 의료 외 4대 업종 소비 규모는 7995억원이다.

카드 1개를 외국인 환자 1명으로 단순 환산한 경우에도, 1인당 의료비 153만원을 포함해 전체 소비 399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 107만원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소비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장속에 미용·쇼핑 집중형, 치료의료 집중형, 관광 복합형 등으로 소비 유형도 복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대만, 일본, 중국, 태국 환자들은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K뷰티 연계형’ 환자로 분류됐다. 카자흐스탄, 몽골 환자들은 한국을 치료 목적지로 인식해 건강검진, 종합병원, 내과 등에 방문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싱가포르 환자들은 의료와 관광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국제의료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를 단순 ‘환자 수’가 아닌 의료 중심을 한 ‘연관산업에서의 외국인환자 소비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첫 사례”라며 “나아가 지역 특화 의료관광 모델 개발, 지자체 정책, 관련 산업계 사업 기획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본부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한국 방문이 어려운 해외 환자를 위한 사전·사후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내년 국민성장펀드 30조… 첨단산업 육성”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구윤철 부총리

“AI 대전환에 6조, 지역에 12조 국민참여형 6000억 규모 조성”

내년 한 해 30조 원대의 ‘국민성장펀드’가 가동돼,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쓰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도 국민성장펀드는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AI 대전환에 6조 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성장엔진을 집중 육성하겠다. 12조 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해 균형성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내년 투자 분야 및 규모는 ▲AI 6조 원 ▲반도체 4조2000억 원 ▲이차전지 1조6000억 원 ▲디스플레이 50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 원 ▲수소·연료전지 6000억 원 ▲항공우주·방산 7000억 원 ▲모빌리티 3조1000억 원 ▲미디어·콘텐츠 1조 원 등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 부총리는 지원방식 관련해 지분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 투·융자 10조 원, 초저리대출 10조 원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다양화를 제시했다. 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도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겠다”고도 말했다.

현재 국민성장펀드 투자수요는 지방정부, 산업계, 관계부처에서 100여 건, 153조 원 규모가 접수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 중 메가프로젝트부터 조속히 확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프로

젝트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2029년까지 고온 초전도저장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 사양의 초전도체 시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임상3상 특화펀드(1500억원)와 1조원 규모의 바이오·백신펀드를 통해 K-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수출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K-콘텐츠 정책펀드를 대폭 확대(2950억 원→4300억 원)하고 연구개발부터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까지 밀착 지원에 나선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 부총리는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과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내년부터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터미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도 2조 원으로 확대(현재 1조 원)해 터미널 등 물류자산 취득과 해외기업 인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여야 “여객기 참사로 부모 잃은 가족에 상속세 공제 검토해야”
▲이석연, 장동혁에 “집토끼 걱정 말고 다수 국민 뜻 좇아 정도 가 달라” /사진 뉴시스

▲한국노총 “민주당 ‘정년연장 연내 입법’ 공약 공염불…태도 돌변”
▲與, 18일 당무위서 ‘최고위원 선거인단·당규개정’ 논의

▲이 대통령 “왜 임대주택 자꾸 분양해 팔아치우나…‘가짜 임대’ 바꿔야”
▲경실련 “5개 부처 퇴직자 재취업 90% ‘줄통과’…관피아 개선 시급”